

# 현대불교

고대불교를 소개하는 평생통장  
**빅맨평생통장**  
 ● 4년 이상 납입 시 10% 최고  
 1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10년 이상 납입 시 10% 최고  
 20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20년 이상 납입 시 10% 최고  
 30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문의: 080-023-4000  
**국민은행**

회장 노대영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중구 경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 2541년(서기 1997년) 10월 1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제 144 호

대학생 시절 대불련 창립에 참여한 인연으로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는 광주지역 대불련 불교활동에 관심을 가져오고 있다. 길다면 길 이 세월동안 잊지 못할 사건이 있다. 그것은 80년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부처님오신날 광주·전남 불교총서장 진행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일이다. 소위 '광주사태'와 불교총서가 나란히 진행되어 나로서는 불교총서에 참여한 학생들의 희생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였다. 그러나 광내 불교총서장 진행위원장을 맡아 나를 도와주던 당시 대불련 전남지부장 김동수 학생이 5월 27일 도청에서 산화한 것이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뫼알처럼 스리저간 수많은 생명들의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대불련불교와 보살불교를 외치던 외옥은 갈대처럼 꺾이어, 살아

## 대장경 한글화 남-북 합작 제의

北 사회과학원, 조선족인사 통해 밝혀  
 교계 '환영'... 통일원 성사 가능성 '시사'

북한이 팔만대장경 한글번역 및 전산화작업을 남북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우리측에 제안해 불교계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중국의 한 조선족 인사를 통해 '팔만대장경 번역본 합작개발제안서'(사본)를 입수한 중앙일보에는 팔만대장경 전산화 작업을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에 이같은 북측의 제안을 구두로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장경연구소는 북측의 제안을 구두로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장경연구소는 북측의 제안을 구두로 전달했다.

합작개발제안서는 팔만대장경 번역작업의 공동추진과 팔만대장경 등 고문헌자료의 전산화를 위한 협력이 주요 골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사회과학원은 93년부터 민족고전연구소장 김승필을 팀장으로 김일성종합대학·김형직사범대·외국문헌사 등의 학자·번역가 1백여명을 동원, 번역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불교계는 불교연구 및 남북문화의 이질감 극복에 발거름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동국대 역경원(원장 윤희남)은 "성서만 읽으면 대장경 연구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원도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해당기관이 북한주민집속 송인서를 제출하고 추진한다면 남북한 문화교류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기석 기자〉



◇국보 제296호로 지정된 칠장사 오물회괘불탱

###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 불교 연중제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상식에 벗어난 여처구니 없는 사건에는 흔히 용기가 생기기보다는 허탈감에 빠지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가 문민정부 들어 서기 1년 전이야 김동수 대불련 지부장의 모교인 조선대학교 교정에 그의 기념비를 세우는 작업을 새벽 2시까지 마쳤다. 그날 밤의 눈물을 한없이 흘리고 나서야 새로운 불심을 갖고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이순규

### 빛고을 광주 침잠의 날은...

또한 광주 관음사의 중창봉사를 하게 되면서 나는 가까스로 또 하나의 발원을 했다. 그동안 광주지역 현대 불교의 요람이었던 광주 관음사가 광주 도심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는 터라 광주의 아름다움 있고 산 자들의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 53불과 삼천불을 모시는 '참회의 도량'을 건립하기로 한 것이다.

진실한 참회를 통해서만 산 자와 죽은 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우리 본래의 청정한 모습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얼마전, 전·노 두 前 대통령의 사면이 거론되었으나 아직 진실한 참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는 떠들썩하다. 모 일간지의 사면에서는 '광주가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함을 본다. 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막상 그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 당사자는 누구나 말을 잃는 셈이 아니던가. 확실한 것은 빛고을 광주는 그 어떠한 어둠도 한기닥 빛에 의해 다 사라질 기대한다. 광주의 빛을 잃고 어둠의 세계에 침잠할 수는 없지 않은가.〈광주 이진경정신과 원장〉

구독료납부 은행지모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a.com

### 전사법 시행령 11일부터 유효

전통사찰 경내에서 전통다원 25일 조계종 총무원은 9월19일 차관회의를 거쳐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11일부터 법제처령을 갖는다고 밝혔다. 〈본지 137호 3면기사 참조〉

### 南동포애적 자비행 北 조불련 감사전문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이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지선스님)의 옥수수 전달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불교도연맹은 북송 옥수수 운송을 맡은 중국 현지와 보리수 무역회사를 통해 '식량'을 보내준 남한 불자들의 동포애적 자비행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화를 해 온 것.

한편 불교추진위원회가 조선 불교도연맹에 지정기탁한 옥수수 2천톤이 9월15일 전달, 완료됐다.

### 괘불탱 7점 첫 국보지정

칠장사·안심사 소장품 등 회화사 및 불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칠장사 오물회괘불탱(제296호·1628년작) △안심사 영산회괘불탱(제297호·1658년작) △감사 비로자나삼신불괘불탱(제298호·1650년작) △신원사 노사나불괘불탱(제299호·1644년작) △장곡사 미륵괘불탱(제300호·1673년작) △화엄사 영산회괘불탱(제301호·1653년작) △창곡사 영산회괘불탱(제302호·1722년작)

조계종 대정부 성명 2면 불교어린이 정보센터 탄생 23면 불교TV '새벽예불' 불자감동 22면 장승, 한민족 회로애락 '생생' 11면

생활속에 살아 숨쉬는 불법구현을 위하여 ...

## PCS 016으로 『부다피아 포교기금』을 만들어 갑니다.

PCS는 — 통신전문가 「한국통신프리텔」  
 가입은 —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신청하십시오.

“통화료의 5%는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 수익 사업이란?

통일포교기금,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귀하께서 「포교기금 부다피아」 PCS 016으로 가입하시면 통화료의 5%가 기금으로 적립되며, 이 기금은 향후 전문단체를 통하여 사용됩니다.

“함께 나누는 세상, 하나되는 세상, 불국토 세상,  
 이것이 「포교기금 부다피아」가 이룩하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 포교기금 부다피아 PCS 016 전국 가입처 ■

서울본사 02-732-1522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부산지사 051-634-5114	청주시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653-1518	인천지사 032-461-3461
속초지사 0392-636-3923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시사 0591-747-0106	부산광역시 0551-84-0735
대전지사 042-625-108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공주지국 0416-55-0020	영주지국 0572-34-3429		
고양지국 0344-912-2323			

주관: 현대불교신문사 · 후원: 한국통신프리텔, 우리민족 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소책세마을, (사)감로심장회

100년 기술이 PCS 016에 모아집니다